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의 역할을 찾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본계획 살펴보니

주제전·국제전에 특별 산업전
학술대회·시민 체험 프로그램
문화전당·시립미술관 등 곳곳 행사
송정역 등 '디자인비엔날레 스팟' 운영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9월8일~10월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 가을 시민들을 찾아오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처음으로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한 광주 곳곳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박유복)가 발표한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는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예산 45억원을 투입, 9월8일부터 10월23일까지 46일간 열린다.

주제에는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디자인 역할과 가치, 비전 제시 등 미래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크게 주제전·국제전 등 본전시와 함께 디자인 페어 성격의 산업전과 바이어 초청, 특별프로젝트, 국제 학술행사, 시민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전은 미래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제시한다. 1관에서는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와 현재 바라보는 미래 모습을 담았다. 2관에서는 AI·IoT·스마트가전 등 '미래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3관은 '신

기술과 미래'로 미래자동차·신에너지 등을 소개한다. 특히 단순 전시 방식에서 탈피해 기획-연구개발-프로토타입(시제품) 등 결과물 전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한다.

4관에서 열리는 국제전은 2개 장르로 나뉜다. '아시아디자인전'은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서구 트렌드를 접목한 디자인상품을 전시한다. 특히 '산업화프로젝트' 결과물 전시가 눈길을 끈다. 지난 2015 디자인비엔날레 때 지역업체와 디자이너 협업작품 선보였던 '광주브랜딩' 중 양산된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툴'을 비롯해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만들어진 약 10여점을 출품한다. 지난해에는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 중 한명으로 꼽히는 필립 스타크(프랑스) 등이 참여했다.

'국제조대전'은 국가간 비교전시를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한 문화적, 디자인적 관점 차이를 선보인다. 산업전은 비엔날레전시관과 문화전당에서 열린다.

문화전당에서는 '디자인페어'를 진행한다. 디자인 상

품, 공예문화상품 등 우수 양산제품을 전시하고 디자인 비즈니스한마당, 기업 전시홍보관, 바이어 상담회를 운영한다.

비엔날레전시관에서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선정, 소비자 판매를 유도하는 디자인마켓(B2C), 우수 제품 전시홍보관 등을 조성한다.

또 문화전당에서는 국제 전문가, 석학을 초청한 국제심포지엄, 학술행사, 워크숍도 마련해 미래 아젠다를 제시한다.

광주 곳곳에는 '디자인스팟'을 조성, 체험프로그램,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표지판,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한 실생활개선 프로젝트, 디자인체택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그밖에 기아자동차,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자동차, 신에너지, 가전제품 등의 전시 협력을 구상하고 ACE-Fair 등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동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미래산업·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제시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 이끌어 내겠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디자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최근 이슈 4차산업을 다루며 미래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장동훈(58)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예전 생각했던 미래 모습과 현재 생각하는 모습은 많이 다르다”며 “미래는 환경파괴 등 그림자가 있어 꼭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반성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 신기술과 만난 미래 산업·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디자인교육원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총감독직을 제안받았을 때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디자인 비엔날레처럼 규모가 큰 이벤트를 이끈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갤럭시 노트7 발화사건으로 삼성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부담은 됐지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최초 디자인비엔날레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런던, 이스탄불 등 전세계 디자인비엔날레를 다니며 느꼈던 점을 광주에서 풀어낼 계획입니다. ‘국제화’, ‘대중화’, ‘산업화’, ‘체계화’로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비엔날레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첫째 ‘아시아디자인전’을 마련하는 등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담은 작품을 선보여 정체성을 확립할 생각입니다. 또 ‘4차산업’ 등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게 디자인비엔날레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신경쓰고 있는 점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도시 곳곳에 디자인 스팟을 만들고 인권주제 티셔츠 공모, 푸드트럭 등 특별 프로그램을 준



비할 계획”이라며 “소쇄원, 태평염전 등 한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명소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총감독은 국내 산업디자인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 무선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며 갤럭시S, 갤럭시노트, 갤럭시Tab, 기어시리즈 및 갤럭시폰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가장 자랑스러운 제품으로 갤럭시 노트와 S3를 꼽았다. 그는 “노트는 4인치 크기 화면이 대세였던 시절에 과감히 6인치 화면에 도전했고 갤럭시S3는 곡선을 도입하며 편리함을 추구했다”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보고 디자인의 힘과 역할을 느꼈다”고 말했다.

“2·3차 산업 시대 디자인은 실용적인 측면만 강조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담는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 문제해결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만들겠습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도서 판매량과 재고, 신간 정보 등 생산·유통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 통합이 추진된다.

지난 1월 대형 서적도매상 승인서적 부도로 불거진 출판계 유통구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출판정보위원회’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년~2021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속성장 기반 마련, 상생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등을 골자로 16개의 추진과제

생산·유통 일원화 선진 출판정보시스템 구축…펀드 조성 등 재정 지원 확충

를 담고 있다.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정부는 승인서적 사태를 촉발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출판유통 선진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서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출판사가 도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제형식 오픈스(ONIX)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 현재 분산돼있는 생산·유통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어음 거래와 불합리한 위탁 판매 관행, 비효율적인 출판물류시스템 문제도 출판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판재단 기금 확충 및 투자 활성화=출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진흥재단의 기금도 확충한다. 기존의 콘텐츠 펀드를 활용해 출판에도 투자가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복덕분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및 출판연구센터 설립=출판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정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실행한다. 이를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뿐 아니라 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권권(출판작업 저작권)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아울러 출판산업 역량을 강화할 한국출판사업 연구개발 센터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활성화 및 중견출판사 육성=종이책을 2차 콘텐츠로 전

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출판사와 콘텐츠업체(영화, 방송, 웹툰 등)·북테크업체 간 제휴와 네트워킹 지원도 강화한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출판사업 모델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우수 출판사를 발굴 지원하고 나아가 출판산업을 이끌어 리드 출판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획 출판콘텐츠 제작 및 출판 연구 개발 자금 지원, 경영컨설팅과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을 추진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코르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